



출처 : Nucleonics Week & Nuclear Energy Institute 등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협력부 ☎ 054-704-7814

[주요기사]

1. 웨스팅하우스의 모든 지분 매각은 낙관적

○ 산업계 순풍으로 인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 상승 기대

2. 타 아시아 국가대비 중국 원자력발전 증가세 걸림돌 적어

○ 정책여건,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가능해

3. PSEG社 주, 연방차원의 원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 생산세액공제(PTC), 제로탄소배출 크레딧(ZEC)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해

웨스팅하우스의 모든 지분 매각은 낙관적

- 산업계 순풍으로 인한 웨스팅하우스의 가치 상승 기대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3 / No. 19 / May 11, 2022

-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는 브룩필드의 CEO는 원자력 에너지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며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웨스팅하우스의 소수 지분만 매각하려고 했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 소유권의 100%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재적인 구매자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 또한, 현재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 AP1000 원자로 추가 건설을 통해 회사 규모 또한 상당히 늘릴 수 있다고 CEO는 말했다. 특히 핵연료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웨스팅하우스는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부 전력회사들이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연료와 연료 부품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게 되어 발생한 변화이다. 오늘날 웨스팅하우스는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 건설된 원자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됐다.
- 예를 들어, 체코의 전력회사이자 VVER의 운영사인 CEZ는 웨스팅하우스와 및 프라마토프과 대체 연료 공급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폴란드가 첫 원자력발전소를 준비하면서 AP1000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올해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CEO는 말했다.
-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는 것은 브룩필드의 사업모델이 사업을 인수해 개선한 뒤 이익을 보고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타 아시아 국가대비 중국 원자력발전 증가세 걸림돌 적어

- 정책여건,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가능해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3 / No. 19 / May 11, 2022

- S&P Global Ratings 社の Wu Yuehao 국장은 지난 5월 10일 Asia-Pacific Cedit 웨비나에서 정책적 지원, 비교적 높은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효율성으로 인해 중국 원전용량의 연간 7%의 안정적 증가세가 예측되며, 이는 타 아시아 국가대비 높은 증가세라고 언급함.
- 원자력발전은 중국 에너지전환의 저탄소, 저비용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가격 급증세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임.
- 가장 최근 발표된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5)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원전을 70GW 규모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중국 원자력 발전 규모가 2035년까지 145GW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목표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 Wu Yuehao 국장은 중국에 있어 145 GW 달성 목표는 현실적이며, 국영은행, 기관투자자 및 주식시장이 원자력산업의 증가세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타 발전원 대비 높은 이윤 및 정부정책의 연속성, 에너지안보 및 리스크 다변화에 대한 수요가 원자력산업에 대한 투자의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임.
- 특히 에너지수요 및 인구밀도가 높은 동부 해안지역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신재생발전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며, 원전이 탈탄소화의 효율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함. ◆

PSEG社 주, 연방차원의 원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 생산세액공제(PTC), 제로탄소배출 크레딧(ZEC)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해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3 / No. 19 / May 11, 2022

- PSEG社의 Ralph Izzo CEO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을 제공하려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계획만으로는 원전의 장기간의 운영 및 면허 연장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수익 안정성이나 전망을 제공하지 않아 지속적인 소유권 유지 결정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21년 11월 미국의 Joe Biden 대통령이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들은 에너지부에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5월 19일이나 PSEG社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PSEG社의 Izzo CEO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또는 탄소 배출 크레딧(Emission Credit)이 연방정부 또는 뉴저지주 차원에서 구체화되어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과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할 수준의 자산 유형 수익을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21년 11월 하원의원을 통과한 Build Back Better 법안에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상원의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탄소 배출 크레딧의 경우 Hope Creek과 Salem 원전을 대상으로 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탄소 배출 인증을 통해 관련 혜택을 받고 있음. ◆